

9월 18일(월) / 시31-34편

▶**내용요약:** 시편 31편에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2편은 참회의 시로 죄를 자복함으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노래한다. 33편은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시기에 찬송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선포한다. 34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은 비참하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같이 초라한 존재가 아니며 인생 전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

▶**질문:** 말씀에 따르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33편)

▶**생각하기:** 다윗이 지은 34편은 그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여 겨우 생명을 구한 뒤에 지은 시이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자 영웅이었고 후에 왕이 될 인물인 다윗이 자신의 원수 앞에서 생명을 구하고자 미친 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말 비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구원자이시기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자!!!**

9월 21일(목) / 시43-46편

▶**내용요약:** 43편에서 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시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표현한다. 44편은 과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회상하면서 현재 당하는 고통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절히 노래한다. 45편은 왕의 결혼식을 묘사하는 시로 왕과 왕의 신부된 자의 영광을 보여준다. 46편은 하나님이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 이심을 찬양한다.

▶**질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슨 악기로 찬양하겠다고 하는가?(43편)

▶**생각하기:** 44편에서 저자는 어려움을 당하자 답답한 마음으로 “주여 **개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44:23)라고 호소한다.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한 저자의 안타까운 절규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침묵하시는가? 함께 외쳐보자. “주여 일어나소서!!!”

9월 24일(주일) / 시55-58편

▶**내용요약:** 55편은 다윗이 간절한 호소를 통해 고통과 박해에서 구원해주시길 것을 호소한다. 특별히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아니라 가까웠던 친구들임을 상기시킨다. 56편은 다윗이 고통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병에 담아 그 양을 측정할 정도로 아프다고 기술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에 사람이 어찌할 것이냐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 57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환난 날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9월 19일(화) / 시35-38편

▶**내용요약:** 35편은 불의한 일을 당한 다윗이 분노하지만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6편은 악인의 생각과 행위를 묘사하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며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의 빛을 보게 된다. 37편은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영하는 문제를 다룬다. 하지만 결국 의인은 평안을 누린다. 3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뿐 아니라 원수의 조롱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참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진실로 ( )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36편)

▶**생각하기:** 다윗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37:23-24)고 한다. 하나님 백성들은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 넘어지기는 하지만 결코 망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자!!!**

9월 22일(금) / 시47-50편

▶**내용요약:** 47편은 하나님을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온 땅의 왕으로 묘사한다. 48편은 시온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49편은 재물을 의지하는 악인의 운명은 허무할 뿐이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한다. 50편은 악인의 불성실한 제사와 불의한 행동을 책망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것을 권면한다.

▶**질문:** 시편 저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49편)

▶**생각하기:** 50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50:7) 또 이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50:15)고 하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문제가 있고 고통당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에 불러보라고 요청하실까? 우리는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서인들이 되자!!!

고 한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새벽을 깨우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한다. 58편은 불의한 통치자들의 악행을 기록하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의인들은 정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을 노래한다.

▶**질문:** 58편 저자인 다윗은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면서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무엇에 씻겠다고 하는가?(58편)

9월 20일(수) / 시39-42편

▶**내용요약:** 39편에서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침묵으로 주어진 고통을 받아들인다. 오직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한다. 40편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41편은 다윗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임을 노래한다. 42편은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의 갈급한 모습을 고통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인의 모습에 비유한다.

▶**질문:** 시편 저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의 비방에 대하여 자기 뼈를 찌르는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42편)

▶**생각하기:**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노래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은 **새 노래로 찬송**하리라 고백한다. 우리도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한다면 우리를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9월 23일(토) / 시51-54편

▶**내용요약:** 51편은 다윗의 참회시로 죄인의 안타까운 회개와 죄 씻음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기록된다. 52편은 도액을 겨냥하여 지은 시로 악인은 간사한 말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공표한다. 53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악행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한다. 54편은 위협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찬양한다.

▶**질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53편)

▶**생각하기:** 다윗은 밤새바와 간음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살인죄까지 저지른다. 이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탄식하며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51:17)고 고백한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해야할 때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아프고 상한 심령**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생각하기:**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는 멀리 있는 원수들이 아니라 가까웠던 자기 동료요 친구들이었음에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13절). 이어 다윗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22절)고 호소한다. 다윗이 얻은 인생의 교훈이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불완전한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서인들이 되자!!!**